

사회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에 자녀 수학여행까지

‘가정의 달’ 선물·외식에 허리띠 단다

물가 급등에 서민 생활고... 일부 부유층과 위화감도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가정의 달 5월에 접어들면서 물가 앙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선물 구매, 외식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 것을 우려해 근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한 대형마트는 어린이날 특수를 기대해 대당 46만원이 넘는 가정용 오락기와 20만원 상당의 휴대용 오락기를 내놓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정에서는 가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일부 부유층에서는 수십 만원이 넘는 아동복 등을 선물하는 등 과소비 현상을 보여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껴 가정의 달 의미까지 퇴색하고 있다.

의 날과 부부의 날을 맞아 올해만 20세가 되는 동생과 부모님께 드릴 선물 비용으로 5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매년 5월마다 지출이 커지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기념일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서 아이 낳은

20대 산모 1주일째 잠적

20대 산모가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일주일째 납도록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광주시 남구 모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A(28)씨가 다음날인 26일 잠적, 이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지난 2일 밤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한 컨테이너형 사무실로 박모(45)씨가 15t 덤프트럭을 몰고 돌진, 1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찾김에 트럭 몰고 사무실 돌진 6명 사상

구례 40대 중장비 기사 “후배에 무시당했다” 들이받아

찾김에 트럭을 몰고 사무실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경찰에 붙잡혔다. 구례경찰은 3일 트럭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박모(45)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시50분께 술을 마친 채 15t 덤프트럭을 몰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한 중장비 사무실로 돌진해 안에 있던 정모(41)씨를 숨지게 하고, 문모(43)씨 등 5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2명 영장

군산경찰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게서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시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박모(44)씨 등 전북지역

의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모(37)씨 등 제약회사 직원 5명을 불구

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씨는 이날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고를 낸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5%로 면허취소 수위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제약회사 사원들의 청탁을 받고 기프트카드와 현금 등 1억5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시의원, 공무원 고발 물의

시정직원 넷 상대로... “의원 신분남용” 반발

순천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공무원들을 잇따라 고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종철 시의원이 최근 시정이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자격으로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이 의원은 문화의 거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역구 의원의인 자신이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지난달 18일 문화체육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2일과 28일, 지난 2일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 민간 설계회사 겸 수 담당자와 시정직원 등을 고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명의 공무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2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

는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의원 개인 자격으로 고소고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자제하고 ‘법적 대응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사안이 이미 중하고 긴급해 개인적 고발이 불가피했다”며 “의회에는 미처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도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사업을 놓고 개인자격으로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은 적격하지 않고 의회의 권한을 남용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순천시공무원노조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의원 신분남용, 공무원의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원침 (8306) 김장두



음주비행 하려다 딱 걸린 기장

김해~인천 아시아나 항공 감독관 불시 음주 단속 적발

음주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 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출발 직전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되는 아처 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측정결과 이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고 다른 항공기 기장과 교체되는 소동 끝에 항공기는 1시간가량 늦게 이륙했다.

3일 아시아나 항공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도 기장이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사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 기장은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걸던 중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게이트밖으로 끌려나왔다.

6차례의 측정결과 오 기장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오 기장은 수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체혈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수치가 0.05%인 도로교통법과 달리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0.0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 효력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항공사 과징금 부과현황’(2009~2011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기장이 음주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사전에 적발돼 해당 항공사가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연필뉴스

부산서 금감원 직원 자살

KB자산 사무실 압수수색

3일 오후 4시5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모 아파트 101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인 김모(4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23~44층의 계단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보혜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에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B자산운용 감사인 이모씨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인 이씨는 금감원에 재직했던 2009년 수차례에 걸쳐 보혜저축은행 오로철 대표이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기자 jgolee@kwangju.co.kr

브랜드 가방 그렇게 갖고 싶었나

놀이터·독서실서 가방 훔친 고교생 잇단 검거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가방을 훔친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3일 놀이터에서 다른 학생의 가방을 훔친 광주 모 고교 1년 민모(16)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중학생 배모(13)군 등 2명이 놓아둔 각 1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2개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민군 등은 배군 등이 가방을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

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경찰은 또 이날 독서실에서 남의 가방을 몰래 가져간 고교 2년 박모(17)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독서실에서 중학생 신모(13)군이 책상 위에 올려 놓은 1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평소 노스페이스 가방이 갖고 싶었는데,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있어서 순간 욕심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기기자 kimho@kwangju.co.kr

‘항수’ 가수 이동원 음주운전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을 한 가수 이동원(60)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항수’ ‘이별 노래’ 등을 발표해 인기를 끌었던 이씨는 이날 새벽 3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5~6km 몰다 한때 대부군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4% 상태.

○이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자 견인 트럭을 불렀고, 기사와 요금 시비를 하다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 /연필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gosi' (한빛고시) featuring '7급 공무원' (7th Grade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It includes a grid of course options like '7급 종합반 (이론)', '9급 종합반 (이론)', '9급 문제풀이', '법원/경찰직',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명품 "강력단과"', and '합격 소망직 (전문)'. The ad also features a testimonial from a former stud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cademy.